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정민

‘현실’이란 익숙한 감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명한 것이나, 때로는 이 익숙했던 감각이 갑자기 낯설어지며,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현실이 미묘하게 어긋나 보이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 미시적인 낯센의 감각은 세계가 갑자기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했던 감각의 전제가 잠시 흔들릴 때 발생한다. 박관우의 작업은 바로 이러한 흔들림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교하게 구성하고, 그 틈에서 새로운 경험이 발생하도록 장치를 설계한다.

작가의 작업은 조각, 영상, 가상현실,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매체들은 형식의 차이를 드러내기보다, 일상적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감각의 조건을 구성하는 데 사용된다. 시간차를 둔 ‘지금’을 마주하게 하거나, 스스로는 직접 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게 만드는 방식이 그 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품을 통해 관객의 인식과 신뢰가 어떻게 재배치되고, 그로 인해 어떤 감각적·관계적 상태에 놓이게 되는가이다. 이러한 관점은 ‘구성된 상황’이라는 작업 방식으로 확장되며, 관객은 그 안에서 사건을 겪고 작품을 구성하는 주체가 된다. 이 작업론은 〈녹색등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작가는 〈녹색등대〉에서 죽음을 종결이나 사망이 아닌 하나의 ‘종료’로 바라보는 태도를 취한다. 죽음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유할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을 여는 계기로 전환되며, 삶과 죽음을 단절된 사건으로 보지 않게 만든다. 이러한 작가의 사변적 태도는 ‘2052년의 이주사건’이라는 가설로 구체화되며, 인간이 신체를 벗어나 ‘뉴-이데아’라는 가상적 공간으로 이주한다는 〈녹색등대〉의 세계관을 형성한다. (이 세계는 증언, 협약, 사건 기록, 반소설적 텍스트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구축된다.)

이 세계관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더블채널 영상 작업 〈달콤한 꿈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역시 이러한 맥락 위에 놓인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프로젝트 〈레빗홀2052〉에 참여했던 주체들로, 작품의 세계관 아래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5주간의 집단 심리극¹에 참여했던 ‘가네모토 하미’와 ‘김상식’이라는 인물이다. 이들은 구체적인 대본 없이 배경과 질문, 몇 가지 조건만이 주어진 상태에서 세계관 속 정체성으로 즉흥적으로 발화하고 행동하며 작품을 구성한다.

¹ 임상심리학에서 활용되는 집단 심리치료의 한 방법이나 작가는 이 구조를 작업의 형식으로 차용한다.

이때 생성되는 발화는 미리 정해진 서사가 아니라, 허구적 세계관 속에서 실제로 겪은 경험과 감각이 중첩된 결과다.

관객이 이 영상에서 마주하는 것은 허구의 세계관 속 설정을 연기하는 인물이면서도, 동시에 강한 정동을 동반해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의 흔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경험은 어디까지를 허구로, 어디서부터를 실제로 구분할 수 있을까. 허구적 설정 안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참여자의 몸과 감각에 분명히 각인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떤 조건 아래에서 ‘진짜’라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게 되는가. 이처럼 박관우의 작업은 진실과 거짓, 가상과 실재를 명확히 구분하기보다, 그 경계를 흐릿하게 드러냄으로써 그러한 구분이 성립하는 기준 자체를 되묻게 만든다.

작가의 작업에서 ‘사건’이란 누구에게나 동일한 방식으로 공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개인적이고 사적이며, 각자의 감각과 기억 속에 서로 다른 형태로 각인된다. 특히 집단 심리극이나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된 작업의 경우, 그 경험은 사후 증언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험은 타인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작가 자신에게조차 온전히 회수되지 않는다. 작가는 이러한 조건에 지속적으로 주목해왔으며, 경험이 배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참여자에게는 분명하지만 타인에게는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속에서 어떤 감각과 관계가 생성되고, 그것이 각자의 기억 속에 어떻게 남는지를 탐색해왔다.

결국 박관우의 작업은 세계를 설명하기보다, 우리가 세계를 경험해온 방식을 잠시 멈추어 세운다. 그가 예술의 틀을 빌려 마련한 장치와 상황 속에서 관객은 자신의 감각과 판단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구성되어 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된다. 그의 작업에서 사건은 눈앞의 이미지나 서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 각자가 그 조건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관계 맺는지에 따라 저마다 다른 형태로 발생한다.